

도내 제22대 총선 격전지를 가다 - 전주갑

“3선 도전” VS “변화·새바람”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각 당의 공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선거구별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이중 전주갑 선거구 분선 대진표의 윤곽이 나오면서 후보들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전주갑 선거구는 인구 18만9,688명의 지역구로, 현재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58)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양정무(59)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 새로운미래 신원식(68)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 무소속 방수형(52) 민주당 부대변인 등 4명이 대결할 전망이다.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공천=당선' 공식이 유효한 민주당의 '넋밭'으로 불리며 분선보다 예산 주목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최근 여·야 후보를 비롯해 제3지대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다자 구도로 총선을 치를 전망이다.

▲민주당 단수 공천 김윤덕, 3선 승리 가능할까?

먼저 3선에 도전하는 김윤덕 예비후보는 현역 국회의원이자 전주갑지역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때 전북에서 가장 먼



김윤덕(민주당) 양정무(국민의힘) 신원식(새미래) 방수형(무소속)

민주당 김윤덕, 안정된 당내 기반이 강점

국힘 양정무, 보수의 '불모지' 서 도전장

새미래 신원식, 행정 등 다양한 경험 갖춰

무소속 방수형, '尹 심판' 총선 완주의지

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나서는 등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어 당내에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다 총선도 높은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의 탄탄한 지지기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김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3선 고지까지의 일단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3선 승리를 자신하면서 △혁신도시 시즌 2부활 △대도시 공영교통망 전북 포함 법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발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힘 양정무, 보수 '불모지'인 전주갑에 도전장

보수진영의 '불모지'인 전주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양정무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가 정보 확보가 관건인 만큼 대통령실과 직통하고 수뇌부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인 오직 자신만이 전주 발전의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양 예비후보는 지역 불균형 격차 해소와 도민들의 체육 문화적 갈등

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야구 제11구단' 유치 및 인구 소멸 위기를 대비해 신생아 1인당 1억원 장려금 지급,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을 공약하고 나섰다.

그는 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바이오분야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전주가 첨단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신원식, 행정·경영 등 다양한 경험 토대로 공약 내걸어

민주당에서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긴 신원식 예비후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행정은 물론 중소기업 및 대기업 경영(전 삼성중공업 이사, 효성기계공업(주) 전무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행정·경영 융복합 정치인이다. 앞서 신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과 맞대결을 예고했으며 민주당 경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하고 새로운미래로 옷을 바꿔 입었다.

다양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는 "전주한우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금융·지식산업 육성" 등을 통해 잠재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어 △금융과 지식산업의 메카 육성 △시니어를 위한 복합타운 건설 △전주에 세계인이 찾는 '물고기마을' 유치를 통한 친환경 양식 수산업 육성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민주당 공천 받지 못한 방수형... "윤석열 정권 심판"

마지막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방수형 출마예정자는 지난 7일 장교 끝에 '무소속' 출마로 총선 완주의지를 밝히며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다. 방 출마예정자는 "제가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던 민주당을 떠나지만 당의 명령에 저항이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선택지가 이 길밖에 없다"고 무소속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단 한 번도 민주당 말고는 마음에 담아 본 적 없기에, 관아에 홀로 서더라도 사랑하는 민주당과 뜻을 모아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틀어진 권력과 싸워 '진정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세우는 데 저를 온전히 소진하겠다. 당선된 후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행보도 지켜보면서 현재 전주갑은 다자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선거 열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승리를 위한 후보들의 선거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자치도의회 농산경위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등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1일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와 전북자치도 출연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주요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의정활동들을 펼쳤다.

오전에 방문한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는 2021년 4월에 준공돼 현재 40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으로 창업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현황을 청취한 나인권 위원장(김제 1)은 "전북은 지난 2015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올해 조성 9년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구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총 793억6,000만원을 마중물로 기술이전, 기술창업, 투자연계 기업매출, 고용창출 등 경제성 성과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연구개발특구 성과평가에서 전북이 최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전북이 전국 최고의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전북자치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훈 기자

“국민께 새 희망 드릴 것”... 새로운미래, 선대위 체제 전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가 22대 총선 30일을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원내 제3당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시작했다. 이는 주요 정당 중 최후다.

새로운미래는 11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중앙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김종민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이날 공식 입당한 홍영표 공동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설훈 의원과 박영순·박원식·김영선·양소영·신경민 책임위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전날 열린 필승 결의대회에서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공동대표는 상임교문을 맡아 지역구 유세에 집중한다.

이낙연 상임교문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사당의 무능과 타락 때문이다. 우리 두 배신자를 심판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윤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해야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은 이를 실행할 만한 국민의 신뢰와 역량이 없다"며 "새로운미래가 정권 심판 교체를 위한 대안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은 "방탄 정치 심판, 민주주의 재건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라며 "이재명 방탄에 울인하는 이재명당으로 김건희 방탄에 울인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튼튼한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한 선거를 위해 새로운미래가 최선을 다하겠다. 힘을 보태주고 함께 해달라"고 외쳤다.

홍영표 상임선대위원장은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감추려는 정부와 여당엔 희망이 없고, 제아무리 민주당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 선거가 30일 남았기에 1분 1초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형식과 절차를 줄이고 오직 승리를 위해 나가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새로운미래가 국민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진짜 민주당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민·홍영표, 상임선대위장에... 이낙연 대표, 광산을 유세 집중

1차 공천 결과 발표... 전주갑 신원식·남원장수임실순창 한기대

이어 "앞으로 30일 다가온 선거는 망가진 한국 정치를 바꿔낼 소중한 시간"이라며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사랑과 길로 접어들던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새로운미래는 제1차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결과도 발표했다. 후보자는 총 13명이다.

먼저 전북에서는 △신원식(전주갑) △한기대(남원장수임실순창) 예비후보가 포함돼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김종민(세종갑) △박영순(대전대덕) △이근규(충북 제천단양) △조덕호(충남 아산갑)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에서는 △이낙연(광산) △박병석(북) 예비후보가, 울산에서는 이미영(남강) 예비후보가 나온다. 2024년 상반기 재·보궐 후보자로는

충북 제천시 마선거구에 정은택 후보가 추천됐다.

비례대표 공천에서는 조정숙 전 소방정장만이 우선공천(전략공천)됐다. 이 외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오디션 걸선'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새미래는 이날 민주당 출신 현역 추가 합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홍 상임선대위원장은 출범식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명 정도 새로운 분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 사람이 중심이 돼 이번 선거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전혜숙 의원의 합류에 대해서는 김 상임선대위원장이 "여러 대화를 해 온 분"이라며 "미리 개인의 거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금주 내로 합류하면 추가로 모시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반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지적사항 보고 청취

남원시의회 김정현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202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됐는지 세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정현 위원장은 올해 춘향제에서는 어린이 체험부스 조성에 보다 신경 써 주기를 당부하고, 강인식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손중열 위원은 보조금 심의 위원을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위촉할 것을, 김길수 위원은 용역 결과물이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다면서, 예산 제출 시 과감히 시제출을 주문했다.

오동환 위원은 수의계약 외부 근절 방안 수립을 주문하고, 이미선 위원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상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오정숙 위원은 증정장애인 생산품물 구매 실적 1% 달성을 위해 힘을 것과 주생 파크골프장 주변 도로 확대의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치검찰 해제법 추진하겠다”

민주 정동영 예비후보, 황현선 전 후보캠프와 연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병)가 당내 첫오포된 황현선 전 예비후보캠프와의 정책연대를 통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황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가칭)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정치검찰 해제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현행 검찰청법을 대신할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과 '국가기소청 설치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제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헌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형사소송법으로 정하도록 바꿔 '수사와 기

소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검사가 중요범죄를 직접 수사하지만 수사실무는 FBI 등 수사기관이 맡고, 독일 검찰은 수사지휘만 한다.

정 예비후보는 정제불명의 검찰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에 배정되는 특수활동비는 연간 100억 원에 이르며 수사의 기밀성을 위한 수사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특별비는 사실상 검찰 내 떡값으로 통하는 통치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확하게 수사명목으로 사용된 액수를 사용하고 그 외 증명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연대 1호 공약의 명칭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굴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376회나 암수색을 당한 이재명 대표, 한 가족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조국사태가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은 일 잘하는 일꾼 필요”

국힘 정문천 의원, 전주를 후보 확정 입장 밝혀

도내 최초로 보수 3선 국회의원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정문천 예비후보(현 비례대표 국회의원)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전주를 후보 확정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을 위해 보수 불모지인 전주에 내려와 10여년을 지켜온 본인도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아무런 준비 없이 낙산으로 내려온 후보 중 누가 전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인지 전주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